

“5·18 비극적 역사 반복 안되도록 배우고 기억해야”

광주 동구 ‘오월 기억 여행’ 투어

곳은 날씨에도 시민 29명 참여
전일빌딩245·주남마을 등 방문
계엄군 만행 접하며 분노하기도
17일 5·18 최초 발표지 등 투어

“5·18을 기억하고 배우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한 주 앞둔 지난 10일 오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공원에 29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광주 동구가 주관한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프로그램은 5·18 역사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오월의 영령들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투어 프로그램은 5월을 맞아 오는 31일 까지 매주 토요일 ‘마을 코스’와 ‘민주 코스’ 두 가지로 나눠 운영된다.

지난 3일 첫 번째 투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투어는 5·18민주광장, 전일빌딩 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주남마을, 동구 인문학당을 방문하는 ‘마을코스’로 운영됐다.

가족, 지인과 함께 참여한 시민들은 역사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1980년 5월의 진실을 마주했다.

첫 장소인 전일빌딩245에 들어선 시민들은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의 흔적과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상황을 재현한 영상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현자(64)씨는 “당시 계엄군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오월의 영령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시 끔찍했던 일들을 잊지 않고 끝없이 배우고 싸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10일간 지속됐던 80년 5월 항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안타깝게 숨진 열사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80년 5월을 경험하지 못했던 참가자들은 신군부의 등장 배경과 광주 고립 이유, 시민들을 짓밟는 계엄군의 만행 등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영란(45)씨는 “아이들에게 5·18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투어를 신청했는데 몰랐던 사실들을 여러 개 알게 됐다. 직접적인 상황들은 보지 못했지만, 당시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니, 화가 너무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 학생들은 계엄군들이 무섭다며 부



지난 10일 ‘동구의 오월 기억여행’ 투어 프로그램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역사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모의 등 뒤에 숨기도 했다. 원서우(10)양은 “5·18에 대해 잘 몰랐는데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가는 계엄군이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투어를 마친 참가자들은 버스를 타고 광주 동구 주남마을로 이동했다.

주남마을은 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버스, 구급차를 상대로 무차별 발포를 한 장소이며 5월 23일에는 시민 두 명이 계엄군의 총격에 부상을 당하고 끌려가 살

해당한 곳이다.

시민들은 빗줄기를 뚫고 산속에 있는 위령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위령비 앞에 선 참가자들은 헌화한 뒤 경건한 마음으로 영령들을 추모했다.

시민들은 다시 버스를 타고 동구 인문학당으로 이동해 이번 투어에서 느낀 점과 5·18에 대한 토론을 한 뒤 행사를 마무리했다.

나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 홍용우(47)씨는 “작년에도 투어에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생각하니 더욱 의미있는 5·18이라고 생각한다”며 “80년 당시의 자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분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오늘 함께 온 아이들도 잘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구의 오월 기억여행’ 세 번째 투어 프로그램은 오는 17일 5·18 최초 발표지와 5·18 국립민주묘지를 방문하는 ‘민주코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광주·전남 과속 단속 최다 적발지는 ‘스쿨존’

학강초 병설유치원 1만7394건
순천 승주읍 승주초 1만5040건

광주·전남지역에서 과속 단속카메라가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경찰청이 11일 분석한 지난해 고정식 무인 카메라 과속 단속 통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과속이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간은 동구 천변우로 학강초 병설유치원 스쿨존으로 총 1만7394건으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 서구 빛고을대로 계수교차로 입구(동림나들목→금호동) 1만4658건, 광산구 첨단월봉로 성모남해유치원 스쿨존 1만1156건, 남구 독립로 백운초교 병설유치원 스쿨존 1만802건, 광산구

첨단중앙로 모모유치원 스쿨존 9441건 순이었다.

전남의 최다 과속 적발구간은 순천시 승주읍 승주초 스쿨존으로 총 1만5040건이었다. 두번째는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593-63(1만3759건), 세번째는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105-1 과역교차로 구간 중점(1만3710건)이었다. 이어 4위에는 순천 서면 동산초 스쿨존(1만2537건), 5위는 고흥 봉래면 봉래초 스쿨존(992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상위 5개 구간 중 광주는 4곳, 전남은 3곳이 스쿨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과속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대법, ‘승진 청탁 뇌물’ 전직 광주경찰청장 무죄

“브로커의 진술 신빙성 부족”

전직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브로커 성모(64)씨로부터 일선 경찰관 A씨의 승진을 청탁받으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고 사유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사건도 이에 해당해 상고심 절차 없이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브로커 성씨는 2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유철 기자

5·18 사적지 걸으며 5월 역사·의미 되새겼다

광주시교육청, 400여명 참가

광주 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에 참여해 5월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제3회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걷기 축제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1980년 5월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력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현장을 걸어 방문하는 축제다.

올해로 세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여해 전남대학교 정문(사적지 제1호)을 출발해 광주역광장(사적지 제2호), 구시외버스터미널 일대(사적지 제3호)를 경유하는 ‘햇볕코스’를 따라 걸었다.

참가자들은 5·18 사적지를 둘러보면서 80년 5월의 역사와 그 의미, 민주주의·인



10일 전남대 정문에서 열린 ‘제3회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에 참여한 광주지역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400여명이 출발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겼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출발지에서 5·18 희망 메시지 헬륨풍선 만들기와 사적지 스탬프 투어, 도착지에서의 마술공연, 팝콘 제공 버스 등 참여자 친화적인 체험부스와 이벤트가 진행돼 호응을 이끌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개회식에

“5·18 사적지를 걸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는 오늘,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며 “학생들이 5·18 광주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비바람 지나가고’ 광주·전남 기온 상승

평년비 따뜻한 날씨 지속 전망
내일까지 큰 일교차 보이기도

당분간 광주·전남 지역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큰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 광주·전남 지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최저기온은 7-13도, 최고기온은 19-25도로 평년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다.

화요일인 13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에 들어 최저기온은 10-14도, 최고기온은 20-28도로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4도 가량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이날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또한 이날 서해남부북쪽편바다에는 순간풍속 초속 8-13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 파고는 1.0-2.5m로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14일 수요일 역시 고기압의 가장자리

에 들지만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으며 최저기온은 11-15도,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광주지방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주말 간 광주·전남에는 강풍이 몰아쳐 지역 곳곳에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내륙을 제외한 전남 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 특보가 발효됐으며 10일 오후 2시에 해제됐다.

이정준 기자